

2004년 신년인사회 중 말씀

변화속의 안정이 목표입니다

역동성과 변화가 우리의 힘입니다.

새해 아침에 좋은 꿈을 많이 꾸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자기와 가정의 소망을 꿈꾸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경제가 활력 있어지고 서민들이 고생을 좀 덜하도록 좋아졌으면 하는 꿈을 꾸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욕심이 더 계신 분들은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국가가 되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우리 삶의 질이나 국민들의 문화가 높은 품격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일도 걱정할 줄 알고 세계질서를 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꿈도 꾸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작년 연말 정책기획위원들과 짧은 토론을 통해 우리 한국이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2만 불 국가로 가는 길, 세계에 우리한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법의 핵심을 역동성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역동성이야말로 한국의 상징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망도 아마 역동성, 변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작년, 참 힘든 한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또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대체로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정당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작년에는 아예 정부와 국회가 큰일이라도 낼 듯이 갈등이 심했지만, 지나고 보니 정치가 시끄러운데 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정책사항에 대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국회를 운영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FTA 하나 남았지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대체로 안정된 느낌을 주는 부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작년에 한바탕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진통을 통해 다시 더 화합하고 또 일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해부터 서서히 양쪽 정파로부터 공격을 받는 처지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선관위가 정말 큰일을 했다는 칭찬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지난 한해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불안, 또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고 금년에도 예측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저 소모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 진통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로 가기 위해 겪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갈등도 없습니다. 변화가 있고 변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만큼 갈등을 심하게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갈등을 꼼꼼이 짚어보면 그것이 그저 피곤하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좋아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갈등을 변화의 한 과정

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를 꾸려나가고 먼 미래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일류국가가 되려면 적어도 몇 개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역시 변화의 속도에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올해를 변화의 속도가 최고인 한해로 만들어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자면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며, 그 속도에서 세계기록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록을 내자면 아마 조용히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 4월까지의 많이 시끄러울 것이고 6월까지도 좀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부터는 잘 정돈된 가운데 빠른 변화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속의 안정을 금년 하반기의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변화와 안정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좀 시원찮습니다. 올해에는 저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